

요약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양육 포기를 고려한 사유 1위는 동물의 행동문제(42.7%)임
- 2023~2025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구조견은 약 22만 마리이며 이 중 29.9%가 안락사로 종결됨. 발견 시점 연령은 생후 48개월 미만인 77.9%로 저연령에 편중되어, 유실뿐 아니라 생애 초기 행동문제 등으로 인한 유기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피구조견의 안락사율은 행동문제가 발현·고착되는 1~3세 구간에서 정점(36.5%·35.5%)을 이룸. 행동서술에 ‘공격성’ 또는 ‘경계·겁많음’이 기록된 개체의 안락사율(65.3%, 56.1%)이 ‘질병·부상’(40.7%)이나 ‘노령’(38.0%)보다 크게 웃돌아, 피구조견의 처리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건강 상태나 연령이 아니라 사람과의 공존 가능성임을 보여줌
- 의료비 부담은 실제로 양육 포기 고려 사유의 상위에 지목되나, 보호소 유입의 연령 구조는 이와 상반됨. 8세 이상 노령견은 유입 비중이 5.4%로 가장 낮고 소유자 반환율은 45.8%로 가장 높으며 안락사율은 18.7%로 가장 낮아, 지불의사의 선결요건이 비용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형성임을 시사함
- 반려동물의 생애 초기 행동문제는 장기 양육 의사와 보험 수요를 약화시키고, 가입 이후에는 양육 포기에 따른 계약 이탈을 초래하며, 공격성의 경우 배상책임 사고 위험까지 높여 펫보험의 시장 규모·계약 존속·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반려동물의 생애 초기 행동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통해 장기 양육과 보험계약의 존속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위험관리자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훈련 전문기관과 제휴해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생애 초기 사회화·행동교정을 유도하는 혜택을 설계함으로써, 계약을 오래 유지하는 우량 계약군을 확보하여 노령기까지 이어지는 생애 전 주기 보장으로 상품을 확장할 수 있음

1. 서론

- 반려동물 양육이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할 만큼 보편화되었음에도, 연간 10만 마리 안팎의 유실·유기와 높은 안락사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 29.2%(2025년 기준), KB경영연구소 통계에서 26.7%(2024년 말 기준)로 나타나며, 2025년 말 기준 누적 등록 동물은 375만~380만 마리 수준, 전체 반려동물 규모는 약 799만 마리(개 544만 마리, 고양이 254만 마리)로 추정됨¹⁾
 - 반면, 2023~2025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 구조동물은 약 31만 마리에 달하며, 이 중 약 72%를 차지하는 개의 경우 30% 내외가 안락사로 종결됨²⁾
- 펫보험은 보호자와 동물 간 성공적인 애착 형성 및 ‘가족화’에 기반한 상품으로, 생애 초기 공존 실패와 양육 포기는 펫보험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사람의 건강보험과 달리 반려동물은 보호자가 치료를 포기하고 소유 관계를 종료하는 선택지가 열려 있어 손실의 크기가 외생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착 형성은 지불의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보험 사고가 성립하는 범위와 계약의 존속 기간을 규정하는 요인이기도 함
 - 예컨대, 신규 가입이 반려동물의 0~2세에 집중되는 한편, 문제행동 등으로 인한 파양·유기 역시 동 연령대에 집중 발생하여 잠재 수요 풀의 축소와 계약 유지율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2023~2025년 구조동물 전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체 특성별 처리결과와 유기 원인을 분석하여, 기존 펫보험의 보장 중심 접근을 넘어 예방·관리 중심의 상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3~2025년 3개년 구조동물 약 31만 건의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처리결과(입양·안락사·소유자 반환)와 연령·행동 특성 등 개체 특성 간의 관계를 검토함³⁾
 - 이를 통해 어떤 개체 특성이 유기 및 안락사 등 부정적 결과와 연관되는지를 파악하고, 반려동물의 생애 초기부터 위험요인을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함
 - 나아가 단순한 사후 의료비 실손 보장에 그치지 않고,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과 사고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지원하는 예방·관리형 펫보험으로의 확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농림축산식품부(2025), “2025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KB경영연구소(2025),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는 매년 12월 31일 시점의 상태를 집계하여 그 시점에 보호 중인 개체를 ‘보호 중’으로 계상하고 축종 합계를 공표하는 반면, 본고는 2026년 9월 1일 조희 시점의 최종 처리결과를 집계하고 개에 한정하여 분석함. 2025년 한 해 기준 축종 합계 안락사율은 17.3%임

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조동물 조회 서비스(2026년 9월 1일 조회)

2. 2023~2025년 피구조조건 특성 분석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여야 하며, 공고 후 10일이 경과하면 지자체로 소유권이 귀속되어 처리권이 발생함(동물보호법 제34조와 제43조)
 - 지자체장은 지체없이 7일 이상 공고를 진행하며, 공고 후 10일 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분양을 우선 추진하되, 회복이 불가능한 상해·질병이나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최대한 보호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는 경우 인도적 처리(안락사) 절차를 이행함
 - 현행법상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일반 가정의 양육 포기 동물 인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행동문제와 단순 변심으로 인한 일반 가정의 양육 포기 개체는 사설 위탁소(유료 파양)로 유입되거나 길거리 유기로 직결되어 국가 보호시스템상 구조동물로 포착됨
 - 지자체의 합법적 동물 인수 대상은 극히 예외적인 불가피 사유로 엄격히 제한됨. 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요양 ② 병역 복무 ③ 태풍·수해·지진 등 재난 ④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⑤ 맹견사육허가 거부·철회 ⑥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한함(동물보호법 제44조)
- 2023~2025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구조동물은 총 311,090마리로, 이 중 개가 72%(223,921마리)를 차지하며, 구체적인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움(〈표 1〉 참조)⁴⁾
 - 원자료에는 발견 장소와 일자만 기록될 뿐 유실·유기·번식 여부를 구분하는 항목이 없으며, 지자체는 발견된 상태 그대로 구조·보호 절차를 개시하므로 유입 경위는 사후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음
 - 유입 경로는 유실, 유기·파양, 자연번식, 사설 위탁소 등 제도권 밖 경로로 구분할 수 있음
- 피구조건의 발견 시점 연령은 생후 48개월 미만인 약 78%로, 이는 우연한 유실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미중성화 상태의 자연번식과 생애 초기 양육 포기의 가능성을 보여줌
 - 연령 구성은 12개월 미만 43.5%, 1~2세 11.2%, 2~3세 23.2%, 4~7세 16.7%, 8세 이상 5.4%로, 유입의 절반 가까이가 생후 1년 이내임(〈그림 1〉 참조)⁵⁾
 - 순수한 유실이라면 연령 분포는 양육 개체군의 연령 분포를 따라야 하나, 평균 양육기간을 10~15년으로 볼 때 정상상태에서 12개월 미만 코호트가 양육 개체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0% 수준으로 추정되어 유입 비중 43.5%는 그 4~6배에 달함

4) 구조 고양이의 경우 발견 시기가 번식 사이클과 같아 유기 문제라기보다는 개체수 관리 문제로 고양이는 소유자가 없는 개체가 대부분이므로 소유 관계를 전제 한 개입이 적용되지 않아 이후 분석은 개로 한정함

5) 원자료의 출생 정보는 연도 단위이므로 연령은 '발견연도-출생연도'로 산출함. 12개월 미만은 당해 출생 개체로 정의상 0~11개월이나, 1세는 전년 출생 개체로 실제 월령이 1~23개월(중앙값 약 12개월)에 걸침. 출생연도가 발견연도보다 뒤로 입력된 2,342마리(1.0%)는 94.9%가 생후 60일 미만 표기를 동반하고 중앙 체중이 2.0kg이므로 입력 오류로 보아 12개월 미만에 편입하였고, 출생 정보가 없는 33마리만 분석에서 제외함

〈표 1〉 연도별·축종별 구조동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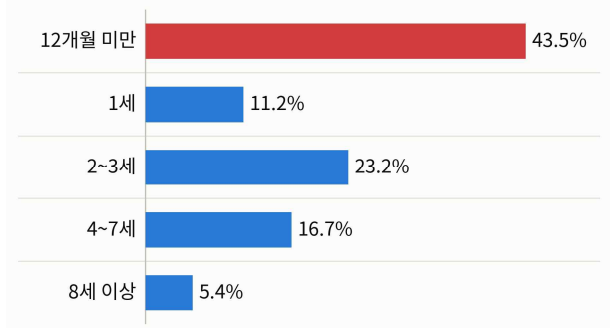
(단위: 마리, %)

구분	계	구성비		
		개	고양이	기타
2023년	111,720	71.7	26.8	1.5
2024년	105,328	73.1	25.4	1.6
2025년	94,042	71.1	27.5	1.4
합계	311,090	72.0	26.5	1.5

주: 대상기간은 발견 시점 기준 2023. 1. 1.~2025. 12. 31.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조동물 조회 서비스(2026년 9월 1일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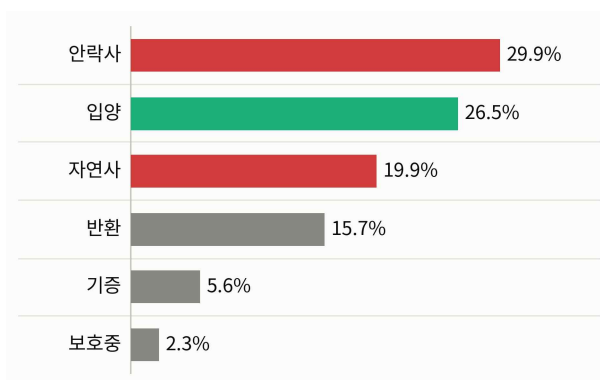
〈그림 1〉 피구조건의 발견 시점 연령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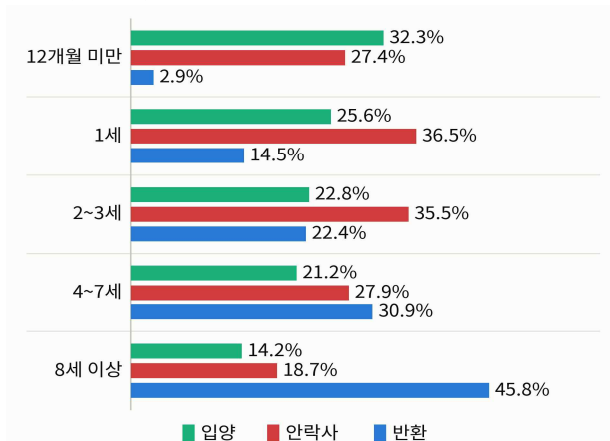
○ 피구조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안락사가 29.9%로 가장 높고 입양 26.5%, 소유자 반환 15.7%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입양률이, 높을수록 소유자 반환율이 상승하고 안락사 위험은 1~3세 구간에서 정점을 이룸

- 입양률은 12개월 미만 32.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연령이 오를수록 하락함(1세 25.6%, 2~3세 22.8%, 4~7세 21.2%, 8세 이상 14.2%)
- 소유자 반환율은 12개월 미만 2.9%에서 8세 이상 45.8%까지 상승하는데, 이는 양육 기간이 길수록 동물등록·인식표 부착과 애착 형성이 진전되어 소유자 탐색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임
- 안락사율은 1세 36.5%, 2~3세 35.5%로 정점을 이루며, 이 구간은 문제행동이 발현·고착되는 시기와 일치함
 - 연령이 오를수록 반환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1~3세 구간의 높은 안락사율은 노화나 질병이 아니라 소유자가 찾지 않으면서 입양도 되지 않는 상태가 이 구간에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보임⁶⁾

〈그림 2〉 피구조건 처리결과



〈그림 3〉 피구조건의 발견 시점 연령별 처리결과



주: 대상기간은 발견 시점 기준 2023. 1. 1.~2025. 12. 31.이며, 연령은 발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값으로 산정함(출생월 미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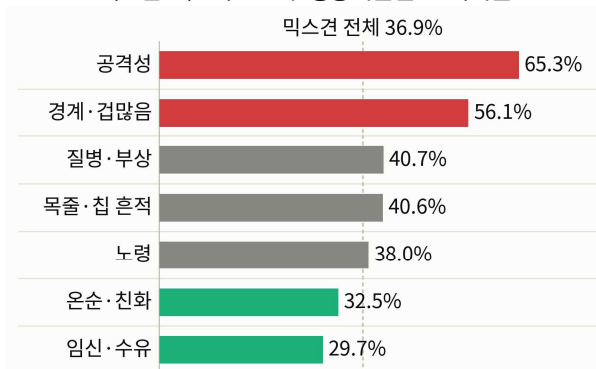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조동물 조회 서비스(2026년 9월 1일 조회)

6) 미국동물병원협회(AAHA)는 개의 사회적 성숙 시기를 생후 12~36개월로 보고, 보호소 인계·행동문제로 인한 안락사·유기가 발생하는 개체의 대부분이 사회적 성숙기에 있는 1~3세라고 기술하고 있음.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AAHA(2015), "2015 AAHA Canine and Feline Behavior Management Guidelines", 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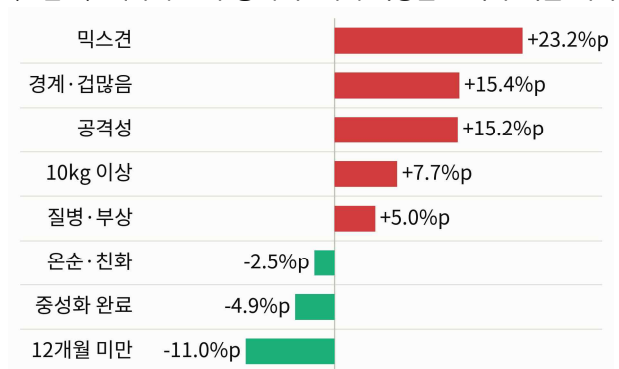
○ 품종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믹스견으로 한정하여 행동서술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경계·겁 많음이 기록된 개체의 안락사율(56.1%)이 질병·부상(40.7%)이나 노령(38%)보다 높아, 피구조건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건강상태나 연령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형성일 수 있음

- 행동서술은 보호소 담당자가 작성한 특징·비고 자유기술을 정규식으로 분류한 것으로, 관찰기록임)
- 안락사율은 믹스견 전체가 36.9%인 데 비해 ‘공격성’ 기록은 65.3%, ‘경계·겁 많음’ 기록은 56.1%로 크게 높은 반면, ‘온순·친화’ 기록은 32.5%로 오히려 낮음(그림 4) 참조)⁸⁾
 - 입양률은 반대 방향으로, 믹스견 전체 25.2% 대비 ‘공격성’ 기록은 7.9%, ‘경계·겁 많음’ 기록은 14.6%에 그치는 반면 ‘온순·친화’ 기록은 30.5%임
- ‘겁 많음’만 기록된 개체의 안락사율은 58.8%인 반면 ‘겁 많음+온순·친화’가 함께 기록되면 46.2%, ‘온순·친화’만 기록되면 30.6%로, 사람을 따른다는 관찰이 덧붙는 것만으로 결과가 12.6%p 개선됨
- 동일 지역·동일 보호소 기준으로 비교해도 행동 기록의 계수는 +15.2~15.4%p 로 유지되어, 지역 간 편차가 아니라 개체 특성이 결과를 설명함
 - 동일 시군구·동일 조건에서 믹스견은 +23.2%p, 경계·겁 많음 기록은 +15.4%p, 공격성 기록은 +15.2%p, 10kg 이상은 +7.7%p, 질병·부상 기록은 +5.0%p 안락사 확률을 높이는 반면, 온순·친화 기록 -2.5%p, 중성화 완료 -4.9%p, 12개월 미만 -11.0%p 로 나타남(그림 5) 참조)

〈그림 4〉 믹스견의 행동서술별 안락사율



〈그림 5〉 지자체 효과 통제 후 개체 특성별 안락사 확률 차이



주: 1) 대상기간은 발견 시점 기준 2023. 1. 1.~2025. 12. 31.임

2) 〈그림 5〉는 안락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확률모형의 계수(%p)이며, 개 218,574마리(보호 중 및 연령·체중 결측 제외)를 대상으로 보호소(371개) 고정효과를 흡수하고 표준오차를 동 단위로 클러스터링함. within $R^2 = 0.102$, 모든 계수 $p < 0.001$. 각 막대는 동일 보호소·동일 조건에서 해당 특성이 안락사 확률을 몇 %p 변화시키는지 나타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조동물 조회 서비스(2026년 9월 1일 조회)

7) 〈그림 4〉의 어느 행동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 개체가 믹스견 중국 관측치의 37.8%(63,796마리)로, 이들 대부분은 기재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외형·유입 경위 등 행동과 관련한 내용만 기재된 경우임

8) 경계·겁 많음이 공격성에 준하는 안락사율을 보이는 것은 두 특성이 별개가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으로 보임. 공격성이 기록된 개체의 56.8%에 겁 많음이 함께 기록되었고, 두 기록이 동시에 붙은 개체의 안락사율은 68.7%로 각각만 기록된 경우(공격성만 60.9%, 겁 많음만 54.4%)보다 높음. 겁 많음은 그 자체로 위험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 공존 조건에서 방어적 공격으로 발현될 수 있으며, 공포가 공격성의 동기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수의행동학·유전학 연구가 축적되어 있음(예를 들어, Salonen, M., Sulkama, S., Mikkola, S., Puurunen, J., Hakanen, E., Tiira, K., Araujo, C., & Lohi, H.(2020), "Prevalence, comorbidity, and breed differences in canine anxiety in 13,700 Finnish pet dogs", Scientific Reports, 10: 2962. DOI: 10.1038/s41598-020-59837-z; Zapata, I., Serpell, J. A., and Alvarez, C. E.(2016), "Genetic mapping of canine fear and aggression", BMC Genomics, 17: 572)

- 종합하면, 피구조건 유입의 상당 부분은 생애 초기의 행동 관리 실패에 따른 유기일 가능성이 있으며, 구조 이후의 안락사나 입양 여부 역시 동물의 건강상태보다 사람과의 안정적인 공존 가능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침
 - 사회화 실패 및 행동문제 등으로 인한 생애 초기 유기 가능성은 보호자 설문에서도 확인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양육 포기·파양을 고려한 사유 1위는 동물의 행동문제(42.7%)임
 - 반려동물 양육자 중 양육 포기 또는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9%이며, 그 이유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42.7%,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35.2%,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 25.7%, '동물의 질병 및 사고' 23.7%, '여건변화' 20.2%(복수응답) 순임
- 상기 분석결과는 반려동물 양육 관련 비용에 대한 지불의사의 선결요건이 관계의 형성임을 시사하며, 정서적 유대가 견고할수록 비용 부담의 증가가 양육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짐을 보여줌
 - 노령견의 의료비 부담 자체는 실재하나, 실제 보호소에 유입되는 개 중 8세 이상은 5.4%에 불과하고 그중 45.8%가 소유자에게 반환되어 노령 구간의 유입은 절반 가까이가 파양이 아니라 유실로 종결됨
 - 비용 부담은 양육 포기 고려 사유의 상위로 지목되나('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35.2%, '동물의 질병 및 사고' 23.7%), 실제 소유 관계의 종료는 노령 구간에서 오히려 드물게 발생하여 인식과 실제 유입 구조가 상반됨
 - 반면 행동문제가 발현·고착되는 1~3세 구간은 피구조건의 34.4%를 차지하고, 이 구간에서 겁많음 기록률(21.3~22.1%)과 안락사율(36.5%·35.5%)이 동시에 높게 나타남

3. 반려견의 행동문제와 펫보험

- 반려견의 행동문제 및 생애 초기 공존 실패는 장기 양육 의사와 보험가입 수요를 약화시키고 조기 계약이탈을 초래하는 한편 배상책임 사고위험을 높여, 펫보험의 시장규모·계약 존속·손해율 등 보험수익성에 영향을 미침
- 구체적으로 먼저, 펫보험 수요는 반려동물의 가족화와 주거공간 내 안정적 공존을 전제로 형성되므로, 생애 초기 행동문제로 공존이 어려워질 경우, 장기 의료비 보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펫보험의 잠재 가입자 기반도 축소될 수 있음
 - 보호자가 10~15년에 걸쳐 의료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대체 불가능한 가족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장기 양육 의사가 형성될 때 가능함
 - 행동문제가 지속될 경우 반려동물과의 관계 및 장기 양육 의사가 약화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에 대비한 보험료가 비용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음
 - 반대로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인 공존과 정서적 유대가 형성될 경우 장기 양육 의사가 강화되어 노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고액 의료비와 장기간의 보험료 부담도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생애 초기 행동문제로 공존 기반이 훼손될 경우 노령기 의료비 위험에 대비하려는 장기 보험수요로의 전환

자체가 제약될 수 있음

- 현행 펫보험은 슬개골 탈구·암·심장질환 등 주로 중·노령기에 발생하는 질환의 치료비 보장 중심인 반면, 0~2세 보호자가 직면하는 주요 위험은 입질, 짖음, 파괴행동 등 일상적인 공존 문제임

○ 둘째, 펫보험은 질병위험이 낮은 생애 초기 인수가 계리적으로 유리하나, 해당 연령대의 행동문제에 따른 유기·파양·안락사 발생 시 초기 투입 사업비의 상각 전에 계약이 이탈하여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요 손보사의 펫보험은 최대 20세 만기 갱신형 장기손해보험으로, 질병위험 및 사고발생률이 낮은 저연령 구간 의 높은 위험마진과 다년도 계약유지를 통해 사업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임
- 가입 반려견의 신규 가입 시 평균 연령은 약 2~3세 수준으로 집계되며, 연령 분포상으로는 0~2세의 어린 연령대 에 절반 가까이 집중됨⁹⁾
 - 신규 가입 가능 연령에 상한이 설정되는 상품이 일반적이고, 연령 증가에 따라 기존 질환 및 질병위험이 누적되 면서 기왕증에 대한 보장 제외, 추가 심사 또는 인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인수 가능성이 높은 어린 반려견에 신규 가입이 집중됨
- 질병이 아닌 문제행동에 따른 파양·안락사 등으로 조기 계약이탈 시 기대 보험료 수익과 고객생애가치가 감소하고 신계약비 회수가 어려워져 보유계약 마진이 잠식될 수 있음
- 특히 저연령의 건강한 개체가 행동문제로 이탈할 경우 위험집단 내 유병 개체 비중이 상승하여 갱신요율 인상과 추가 건강체 이탈을 초래하는 역선택의 악순환(Death spiral)이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생애 초기 행동문제는 배상책임 특약의 손해율을 악화시킬 수 있음

- 펫보험의 기본계약은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특약으로 타인의 신체나 다른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사망 시 장례비·위로금을 부가할 수 있음
- 행동문제는 펫보험 수요를 줄이는 방향(공존 실패에 따른 미가입·조기 이탈)과 늘리는 방향(배상책임 대비 수요)으 로 동시에 작용하며, 본고의 관측 범위에서는 어느 쪽이 우세한지 판단할 수 없음
- 다만 행동 상태는 연령·품종·기왕력과 달리 인수 시점에 관측되지 않아 심사로 선별할 수 없으므로, 수요가 어느 방향으로 작동하든 보험회사로서는 사전적 위험 감축이 유일한 대응 수단임

4. 결론 및 시사점

○ 반려견의 행동문제는 개별 보호자의 양육문제를 넘어 펫보험의 가입수요·계약 존속·손해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간 훈련서비스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험회사의 참여가 필요함

9) KB손해보험 ‘금쪽같은 펫보험’ 판매 첫 달 계약 분석(2023. 7.) 및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펫보험 출시 4개월 누적 계약 1만 건 기준임(2026. 7. 30. 집계); 라이선스뉴스(2023. 7. 10.), “KB손해보험, 매출 1억 원 돌파 ‘금쪽같은 펫보험’...가입 계약 분석”; 아시아경제(2026. 7. 30.), “카카오페이손보, ‘펫보험’ 4 개월 만에 계약 1만 건 돌파”

○ 행동문제는 양육 포기의 주원인이지만, 행동교정 서비스는 소비자가 구매 전은 물론 이용 후에도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장 기능만으로는 적정 수준의 공급과 이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개체의 기질·환경·양육 방식에 따라 원인과 해법이 달라 서비스 품질의 표준적 비교가 어렵고, 정보가 공급자에게 집중되어 소비자가 적정 훈련 기간·횟수 및 과잉 공급 여부를 사전에 가늠하기 힘들
- 또한 교정 효과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보호자의 지속적 참여와 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해, 서비스 자체의 순수한 효과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 대비 성과가 불확실함
- 결국 소비자는 훈련사의 전문성, 서비스 품질 및 적정 가격을 사전에 비교하기 어렵고, 서비스의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¹⁰⁾
- 2024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 인프라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서비스 품질의 표준화·성과 검증·가격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생애 초기 행동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움

○ 보험회사는 생애 초기 행동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통해 단순한 의료비 보상자를 넘어, 장기 양육과 보험계약의 존속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위험관리자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음

- 생애 초기 훈련·행동교정 서비스는 단순한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반려동물의 안정적인 공존과 장기 양육을 유도하여 장기적인 보험수요와 계약 존속을 뒷받침하는 기반 서비스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험회사는 다수 계약자를 기반으로 전문기관과의 제휴·인증 및 플랫폼 연계를 통해 훈련서비스의 품질을 검증·표준화하는 집합적 구매자이자 제3자 지불자로 기능함으로써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음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기준을 설정하고, 회차·단가·훈련 프로토콜을 표준화하며, 행동개선 및 재발률 등 사후성적을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품질 검증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음
- 또한 생애 초기 사회화·행동교정을 유도하는 인센티브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 유지 성향의 우량 계약군을 구축하고, 노령기까지 이어지는 생애 전주기 보장체계로 상품을 확장할 수 있음
 - 생애 초기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이용 시 보험료 일부 환급 또는 갱신 혜택을 제공하고, 장기 유지계약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경감 등 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생애주기별 행동관리와 계약유지를 연계할 수 있음
 - 초기 행동관리를 매개로 형성된 계약관계를 발판 삼아 노령기 만성질환 의료비 완화, 완화의료, 장례 서비스까지 단계별로 연계함으로써 단기성 치료비 보장을 넘어선 생애 전주기 관리형 펫보험으로 고도화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는 신규 고객 유입 → 초기 양육 안정 → 문제행동·사고 예방 → 계약 유지 → 장기 고객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형성하여, 사회적 가치와 보험회사의 사업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음

10) 훈련업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시장 규모와 업계 평균 가격을 공식 통계로 확인할 수 없음. 저자가 2026년 9월 재능거래 중개 플랫폼(숨고 등)에 직접 견적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내용과, 훈련업체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문형 개별 훈련은 회당 10~30만 원, 생애 초기 사회화 교육은 다회차 패키지 기준 100만 원 내외이며, 훈련소 입소 위탁은 이를 상회함. 소수 사업자로부터 얻은 비확률 표본이므로 시장 가격의 대표값이 아니라 가격 수준의 참고치임

- 무엇보다도, 가입 초기부터 생애 초기 사회화 교육, 문제행동 상담·교정 등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양육 역량과 애착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유기 및 안락사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지난 6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총동적 입양 차단 및 유기 억제를 위해 판매업자에게 구매자의 사전 교육 이수 확인을 강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정부 플랫폼(동물사랑배움터 등)의 교육은 법적 의무와 기초 소양 중심의 최소한의 자격 검증용에 불과하여, 개체별 문제행동 예방·교정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훈련과는 질적 괴리가 큼
- 둘째, 생애 초기 양육 지원을 통한 해지율 하락과 계약 유지기간 확대는 계약당 사업비 분산과 신계약비 조기 회수를 가능하게 하며, 손해율 개선으로 요율 인상 압력이 완화될 경우 갱신 시점의 우량 계약 이탈까지 억제하는 선순환을 유도함
- 셋째, 사고 보장 중심에서 생애주기 관리형 서비스 보험으로 상품가치를 확장함으로써, 0~2세에 집중된 신규 가입 고객을 성견기 이후까지 장기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넷째, 반려견의 돌발행동과 통제불능 상황을 줄여 대인·대물 배상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사고 심도를 낮출 수 있음